

“여성 신도들 뭉쳤다”



수녀, 교무, 비구니스님 등 여성 성직자들로 구성된 삼소회에 이어 재가 여성 신도들로 구성된 '재가 삼소회'가 부산에서 창립된다. 3월 29일 부산여성불자회 사무실에서 창립 준비 모임을 가진 재가 삼소회에는 종교 화합과 나눔

불교·원불교·천주교 '재가삼사회' 창립 교류 통한 종교화합·봉사활동 펼칠 예정 청소년 상담 등 사회역할 확대 나서

의 삶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특히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와도 긴밀한 교류를 갖고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학교상담 봉사자로 활동하던 이들을 주축으로 발족되는 재가 삼소회는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회장, 안락 성당

조말숙씨, 원불교 사직 교당 박경순씨 등을 중심으로 회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상담자격증을 가진 학생 상담 전문가, 전직 교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각 종교별로 10명씩, 총30명의 회원이 확보되면 곧바로 창립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가 삼소회 결성에 뜻을 모은 조말숙 씨는 “종교마다 개별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힘과 마음을 모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동감의 이유를 밝혔다. 재가 삼소회 활동의 기본 방향은 종교화합. 우선 각 종교간 율타리 허물기 위해 사찰, 성당, 교당 순례 행사를 갖고 성직자 초청 간담회 등 이웃 종교 바로 알기 운

동을 펼쳐게 된다. 이웃 종교 성직자 초청 간담회도 갖는다. 이 밖에도 삼소회 소속 성직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 종교인들의 힘을 결집해 나감으로써 여성 종교인들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기록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가 삼소회는 봉사,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봉사’의 깃발을 꽂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를 위해 “나누는 삶, 봉사하는 삶은 종교를 초월한 과제”라는 신념으로 청소년상담, 종교를 초월한 불우 시설 후원 및 자원봉사 등 다년간의 봉사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봉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회장은 “종교는 달라도 봉사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20번째 교육청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인연된 분들이라 앞으로 내실 있는 봉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가 삼소회 창립의 의미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3월 29일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초펠 스님 초청법회 모습.

삼원노인복지센터 초펠 스님 초청

자원봉사자 위한 특별법회

사회복지법인 삼원(대표이사 민소현)이 운영하는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초펠 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3월 29일 열린 법회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법회라는 점과 티베트 스님인 초펠 스님과 한국 불자들의 만남으로 의미를 더했다. 초펠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일체중생을 위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내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끼워야 하는 마음 없이 보시하고

즐겁게 그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미륵복지원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문소현 이사장 비롯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 등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봉사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흥희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법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마음을 다지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우리는 부처님 품속 한 식구



통도사자비원과 삼소원 보현행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워하고 있다.

통도사 자비원·사천 삼소원 보현행원 어르신들 위문 정보 공유 친교의 장 마련

“그동안 잘 있었어? 반가워! 정말 반가워!” 이산가족 상봉도 아닌데 3월 24일, 김해 무료노인요양원 보현행원(원장 최분이) 복도가 떠들썩하다. 멀리서 손님이 왔기 때문이다. 사천 삼소원(원장 하영숙), 양산 통도사자

비원(원장 오심)에서 보현행원을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년 전 만난 적이 있는 보현행원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느라 바쁘다. 2002년 삼소원과 보현행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통도사자비원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삼소원에서 그리고 올해는 보현행원에서 다시 만났다. 외출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동병상련의 애뜻함 때문인지 만남의 기쁨이 각별하다. 보현행원 류호순 할머니는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을 만나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통

도사자비원에서 온 한분홍 할머니의 손을 꼬옥 잡는다.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불교계가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인 보현행원과 삼소원, 통도사자비원이 시설간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행사는 세 시설간의 프로그램과 정보 공유는 물론 어르신들의 타 시설 방문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와 친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 시설에서 요양중인 50여명의 어르신들과 오심 스님, 하영숙 원장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보현행원 복지사들이 준비한 코믹 공연과 보현행원 최분이 원장이 깜짝 출연한 장고 춤사위, 장기 자랑 등으로 흥겨움을 더했다. 최분이 보현행원 원장은 “가을에는 통도사자비원에서 초청을 했다”며 “부처님의 자비이념으로 뜻을 같이하는 시설간의 교류로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천미희 기자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여래원' 개원

65세 이상 치매·중풍환자 무료 입주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정진석)는 3월 26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381의 9번지에 치매 및 중풍질환 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 여래원(원장 박종명)을 개원했다. 65세이상 중풍 치매 질환 노인72명을 수용하여 진료하게 된 여래원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치매 중풍질환자는 무료로 입주하며, 65세 이상의 일반 치매 중풍질환자도 25명 선에서 실비(1개월 60만~80만원)로 입주 가능하다. 대지 424평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735여평 규모의 여래원은 식당, 물리치료실, 주·단기보조실, 목욕실 등을 갖추고 중풍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증상별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여래원 개원식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여래원 운영기금마련 '치매어르신과 함께 하는 자비의 작품전'을 함께 개최한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전

사회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동아화, 서양화, 공예, 전자작품 등의 개인 소장품을 후원 받아 중광 스님, 수안 스님 작품 등 15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053)472-2222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신라문화원 11주년 기념식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개원 11주년을 맞아 3월 20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해국 스님 초청법회 및 기념식(사진)을 가졌다. 해국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백상승 경주시장, 박영복 국립경주박물관장, 전국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협회장 지성희 신부

대구 교불회 신연섭 회장 선출

교사불자연합회대구지부는 3월 20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포교국장 혜경 스님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고등학교 반야전 3층법당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신연섭 교사(덕원중) 부회장 서용선 교사(노전초등)의 8명의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고 2004년도 행사일정을 확정했다. 신연섭 신임 회장은 “청소년 포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부산 대불청회장 류상영 씨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류상영)는 3월 21일 부산 법어서 설법전에서 창립 38주년 기념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사진)을 병행했다. 류상영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법중흥을 위해 재도약하는 청년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청원 길상사, 대웅전 기공식

청원 길상사(주지 무자) 3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초청 대법회 및 대웅전 기공식을 병행했다. 이날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영·호남 불자들의 가교역할을 할 길상사 대웅전 불사가 지역 불자들의 힘을 모아 원만 회향되길 바란다”며 “길상사는 갈등과 논쟁을 지양하고 상생의 육화 정신을 일깨우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사 말사인 길상사 대웅전 기공식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을 비롯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AMS
2천만 불자의 대표 브랜드

2천만 불자 (주)AMS 주식 10주 갖기 운동

한국불교 태고종의 법인인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에서 금년 1월에 인수한 스마트카드 제조 및 송모사업 업체인 코스닥 등록기업 ㈜AMS(www.ams.co.kr / 회장 이운산 총무원장, 대표이사 부회장 지현진, 대표이사 사장 정호운)의 주식 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태고원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AMS는 제16기 주주총회에서 전 임원진의 급여 20%를 자진 반납키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명실상부한 불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 최대주주인 지병규씨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당사 우시주조합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으며 임직원의 '우시주 100주 갖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대주주 중심의 회사 경영을 막고 소액주주 중심의 투명한 회사 경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액주주들을 하나의 큰 대주주 개념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주식 담당자로 정하여 직접 매주 두 차례 우선상의 공식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대표이사들의 E-mail을 공개하여 수시로 이메일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소액주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진 내부의 투명경영 실천과 함께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에서도 불교종단들과 협조하여 명실상부한 불교의 대표적 성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천만불자들에게 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남과 나를 함께 이롭게 한다'는 불교의 자리아타정신을 실물경제에 접목하여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참여대상 : 전국 2천만 불교 신도

2. 참여방법 : 1) 코스닥시장 내 직접매입 2) AMS 유상증자 기간(3/29~31)내 청약 신청

3. 문 의 : 에이엠에스 업무지원팀 (02-780-2031)

4. 참 조 : 에이엠에스 홈페이지 (www.ams.co.kr)

남과 나를 함께 이롭게 하는 불교 기업

AMS
www.ams.co.kr